



# 하상주보

2017년 4월 16일 (가해)

부활 성야 미사

제1637호

**제1부 빛의 예식** | 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행렬, 부활 찬송

##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  
(또는 1,1.26-31ㄱ)

**화답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겹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제3독서** | 탈출 14,15-15,1ㄱ

**화답송** | 탈출 15,1ㄷㄹㄱ-2.3-4.5-6.17-18  
(◎ 1ㄷㄹ)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7독서** | 예제 36,16-17ㄱ.18-28

**화답송** | 시편 42(41),3.5ㄱㄴㄷㄹ;  
43(42),3.4 (◎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서간** | 로마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음** | 마태 28,1-10

**제3부 세례 예식** |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 제4부 성찬 전례

### 성가 안내

- 봉헌성가 : [131] 찬미 노래 드리자  
[133] 부활 송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 [166] 생명의 양식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 파견성가 :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7 예수님의 얼굴을 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of Magdala came to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and saw the stone removed from the tomb.  
So she ran and went to Simon Peter and to the other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told them,  
“They have taken the Lord from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put him.”  
S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ent out and came to the tomb.  
They both ran, but the other disciple ran faster than Peter  
and arrived at the tomb first;  
he bent down and saw the burial cloths there, but did not go in.  
When Simon Peter arrived after him,  
he went into the tomb and saw the burial cloths there,  
and the cloth that had covered his head,  
not with the burial cloths but rolled up in a separate place.  
Then the other disciple also went in,  
the one who had arrived at the tomb first,  
and he saw and believed.  
For they did not yet understand the Scripture  
that he had to rise from the dead.

###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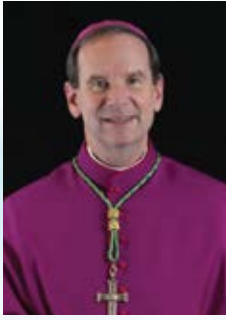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는 빈 무덤에 있는 수건과 아마포를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살았던 사도들도 부활의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알몸을 드러내고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린 뒤 봄에 새싹을 내는 나무의 몸짓을 보고 겨우 ‘부활의 진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이성을 비출 때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하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처음에 낯선 노래가 점차 친근한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진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았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미움과 증오와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음은 우리의 친근한 벗이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rejoice with all of you in a special way on my first Easter as your Bishop. May Our Savior's triumph fill your hearts with joy this sacred day and always!

What the world saw as a defeat on Calvary was revealed instead to be the source of our hope and gladness. The power and glory of God transformed the crucifixion of Jesus into the source of our freedom from sin and death. The empty tomb shows us that Jesus has opened for us the way to life eternal.

As disciples of Jesus, may we be witnesses to this joyful message just as Mary Magdalene was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as she shared the news of the Risen Christ. May we spread this Good News today and every day by our commitment to holiness, the faithful and constant living of our faith and the compassion we extend to others, especially those most in need.

I pray that you and your families will be filled with the God's abundant blessings during this sacred Season of Easter and alway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Mary our Mother, may you live in the newness of life that we share in Our Risen Lord, now and forever.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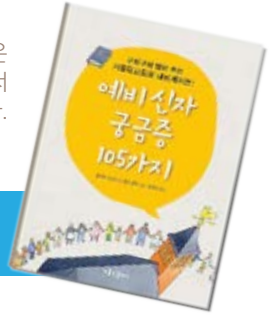
‘희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들에 지배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이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을 재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수난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써 소중한 시간들을 기꺼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자선과 애공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의 희생이 기쁨과 희망이라는 부활의 꽃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성 정 바오로 성당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삶을 통해  
더욱 밝아지고 기쁨 넘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희생적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사회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길 희망합니다.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 Q 예언서나 묵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책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예언자들이 있었다. 하느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에게 전해 줄 예언자를 뽑는 데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다. 또한 바빌론 유배와 같은 매우 힘든 시기에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구원 약속을 전해 줌으로써 희망을 심어 주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이미 약속하신 구세주를 반드시 보내 주실 것이라고 알리면서 용기를 주었다.

예언자들은 때때로 다른 민족들에게도 올바른 마음을 지니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느님 말씀에 귀를 막아 버린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앞으로 생길 일도 미리 알려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는 아니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다.

또한 일기 예보를 전하는 기상 캐스터와도 달랐다. 예언자들은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하느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전한다. 그래서 예언자를 하느님의 ‘전령’ 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이사야 · 예레미야 · 에제키엘 예언자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세 사람을 대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 밖에 엘리야도 중요한 예언자다. 비록 엘리야란 이름이 붙은 책은 없지만, 열왕기 상권(17-19장)에서 그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열두 소예언자(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냐, 하깨이, 즈카르야, 말라기)도 있다. 대예언자들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붙은 책의 분량이

대예언자들의 책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한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 묵시록’ 이다. 요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내다보았다. 이를 ‘환시’ 라고 하는데,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환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없다. 사실 요한 묵시록의 많은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날까지 변함없이 하느님을 믿도록 격려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책은 하느님이 저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세상을 다스리실 유일한 임금’ 이시라고 계속 전해주기 때문이다.

요한 묵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데, 소아시아(아시아의 서단부, 흑해와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에 둘러싸인 반도로 터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다.)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한데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쓰일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주변 국가와 다른 민족들에게서 박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요한 묵시록은 파트모스 섬에서 기록되었다!**  
이 섬은 오늘날 그리스에서 가장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이기도 하다.

 **예언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이 맡은 예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께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며 예언자가 되기를 거절하였다. 요나 예언자도 하느님이 니네베에 가서 예언직을 수행하라고 하시자 일부러 그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따라 예언 활동을 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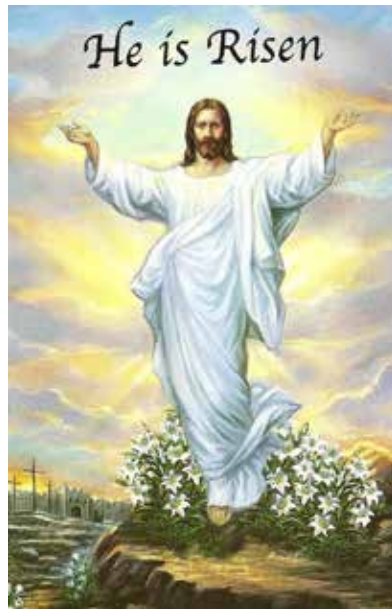


# HAPPY EASTER

**E**aster is the celebration of Christ's resurrection from the dead. It is celebrated on Sunday and marks the end of Holy Week, the end of Lent, the last day of *the Easter Triduum* (Holy Thursday, Good Friday and Easter Sunday), and the beginning of the Easter season of the liturgical year.

As we know from the Gospels,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following his crucifixion, which would be Sunday. His resurrection marks the triumph of good over evil, sin and death. It is the singular event that proves that those who trust in God and accept Christ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Since Easter represent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to mankind, it is the most important holiday on the Christian calendar.



Most Catholics attend Easter Vigil at midnight, although the services can be lengthy because many sacraments are performed, such as baptisms and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during the Mass. Services during the daytime on Easter are shorter and well attended. Following Easter Sunday, the season of Easter begins and lasts for seven weeks, ending with Pentecost.



## A Message from Pope Francis on Palm Sunday



As usual, Pope Francis celebrated his April 9 Palm Sunday Mass in St. Peter's Square, beginning with the blessing of palms at the obelisk in the center of the piazza. After the blessing, he led a short procession up to the main altar, where he continued with the celebration of the rest of the Mass.

The Mass coincided with the 32nd World Youth Day, which this year holds the theme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and is the first step in preparing for the global 2019 WYD encounter in Panama.

To mark the occasion, a delegation of 200 youth from Panama, a number of other Central American countries and Mexico were present in the square to receive the WYD cross and the Marian icon "Salus Populi Romani" from Polish youth, who hosted the global 2016 event in Krakow.

In his homily during Mass, Pope Francis said the

celebration of Palm Sunday is "bittersweet," since there is both joy and sorrow as the Church recalls the cries acclaiming him as king during his entrance into Jerusalem, but which is accompanied by the solemn proclamation of his Passion and death.

"In this poignant contrast, our hearts experience in some small measure what Jesus himself must have felt in his own heart that day, as he rejoiced with his friends and wept over Jerusalem," he said.

"Jesus himself sees in this joyful welcome an inexorable force willed by God," he said, but noted that while he enters the city in this glorious manner, Jesus "is no misguided purveyor of illusions, no new age prophet, no imposter."

"Rather, he is clearly a Messiah who comes in the guise of a servant, the servant of God and of man, and goes to his passion. He is the great 'patient,' who suffers all the pain of humanity," he said, and encouraged faithful to reflect on the suffering Jesus would face in the week before his death.

As we listen to the crowd joyfully acclaim Jesus as our King, let us also reflect on "the slanders and insults, the snares and betrayals, the abandonment to an unjust judgment, the blows, the lashes and the crown of thorns, and lastly, the way of the cross leading to the crucifixion," the Pope said.

Pointing to the passage in the Gospel of Matthew where Jesus tells his disciples that if anyone wants

to follow him, "let them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Francis noted, "Jesus never promised honor and success. The Gospels make this clear."

Rather, the Lord had always warned his disciples that his was a path of suffering, and that the final victory would be achieved through his Passion and death on the cross.

"All this holds true for us too," the Pope said, and urged those present to pray for the grace "to follow Jesus faithfully, not in words but in deeds."

He also encouraged them to pray for the patience "to carry our own cross, not to refuse it or set it aside, but rather, in looking to him, to take it up and to carry it daily."

April 10, 2017 Vatican City (CNA/EWTN News)

### ANNOUNCEMENT

#### 1. First Communion Class Workshop

- When : April 22(Sat) 2pm-4pm

#### 2. Jr. High Bash

- When : April 29(Sat) 3:30pm-9pm
- Where : St. John Paul the Great HS in Dumfries
- Cost : \$10/participant

#### 3. Sunday School Spring Fire Drill

- When : April 23(Sun)

#### 4. Rice Bowl Collection

- When : April 23 and April 30
- Where : Hasang Lobby

- 1 베드로회 모임**  
• 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나눔터)
- 2 정기 울뜨레야 회합**  
• 일시: 4월 21일(금) 오후 7:30 미사 후(친교실 A-1,2)  
• 문의: 궤노덕 (703)608-9664
- 3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4월 9일 - 5월 7일(8시 / 10시 미사 후)  
• 준비 서류: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견진식: 6월 25일(일) 주교좌성당 오후 2:30  
• 문의: 김우기 교육부장(703)395-1305
- 4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신약, 구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접수: 매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문의: 지경수 요한(571)331-6047
- 5 페루 부갈파 봉사단 의료 봉사(메디컬 의사) 긴급 모집**  
• 2017년 페루 부갈파 봉사단에서 의료 봉사하실 메디컬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유제운 요셉 (703)628-9314
- 6 부갈파 봉사단 첫모임**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30(하상관 #108)
- 7 CYO Lock in**  
• 일시: 4월 21일(금) 오후 7:30(체육관) - 4월 22일(토) 오전 9:00  
• 문의: 김다니엘 (703)795-1558
- 8 사도 임원회의**  
• 일시: 4월 21일(금) 오후 8시(B-1,2)
- 9 주일학교 불학기 소방훈련(Fire Drill)**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10(하상관)
- 10 하상회 모임**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30(B-3,4)
- 11 안나회 모임**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30(A-1,2,3,4)
- 12 Kof C 정기모임**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30(B-1)
- 13 요한회 모임(50대 교우)**  
• 일시: 4월 23일(일) 오전 11:30(B-2)
- 14 복사단 모임**  
• 일시: 4월 23일(일) 12:40(B-1,2)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16일(일)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부활대축일(오전 8:00,10:00), 성인-성당/학생-친교실, 오전11:40, 오후 5시미사 없음, 베드로회 모임(오전 11:30,나눔터), 주일학교 휴교
17일(월)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18일(화)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하상성인학교(9:30-하상관,친교실), 레지오마리아(20:00,친교실), 성령기도회(20:00,도사실)
19일(수)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20일(목)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21일(금)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하상성인학교(오전 9:00-하상관,친교실), 사도임원회(오후 8시,친교실 B-1,2), CLC(오후 8시,친교실), CYO Lock in(오후 7:30- 22일 오전 9시, 체육관)
22일(토)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한인복지센터 건강검진(9:00,친교실), 하상한국학교(9:30, 하상관), 첫 영성체만 워크샵(오후 2시, 하상관)
23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하상회(11:30, B-3,4), 안나회(11:30, A-1,2,3,4), KofC(11:30, B-1), 요한회(11:30,B-2), 복사단모임(오후12:40, B-1,2), 주일학교 소방훈련(11:10, 하상관)

- 15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최 건강검진의 날**  
• 일시: 4월 22일(토) 오전 9:00 - 오후 12:30  
• 장소: 본당 친교실  
• 협합,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등의 검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문의: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240) 683-6663 / (703) 354-6345
- 16 2017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5월 6일(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등록: 친교실(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허진 (703)376-1372
- 17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봉사부 / Kof C 주관)**  
• 일시: 4월 30일(일) 오후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김버나드 (703)342-2194
- 18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일시: 5월 13일(토), 5월 14일(일) • 장소: 성당 주차장  
• 물품기증: 4월 9일- 5월 7일(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동훈 요한(703)585-2700
- 19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일시: 5월 27(토) - 5월 29(일)  
•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ME 대표 김 레지나 (703-477-2446)
- 20 알링톤 교구 다민족 음악회 성가대 모임**  
• 다민족 음악회에 참가할 단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민족 음악회 일시: 5월 20일(토) 오후 7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 문의: 김문자 마리아 (703) 615-9910
- 21 뉴저지 파티마 일일 성지 순례**  
•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오후 10시 도착  
• 장소: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1인당 70불(식사 포함)  
•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세요.  
• 문의: 김 그라시아 (571) 243-5054
- 22 제9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 생명의 말씀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접수: 4월 23일부터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부활 팔일 축제: 창세 36-39, 마태 12**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4월 20일 (목) 오후 5:00-6:00  
4월 21일 (금) 저녁 11:00-12:00  
4월 23일 (일) 자정 12:00-1:00

- 복음 영상
- 가톨릭 뉴스
-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 : 박승찬 교수(8)/ 흔들리는 로마제국과 눈물겨운 자킨 신앙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4월 9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주일헌금	\$ 8,055.31
교무금	\$ 13,000.00
교무금(신용카드)	\$ 6,780.00
특별헌금	\$ 480.00
2차 헌금	\$ 0.00
<b>합계</b>	<b>\$ 28,315.31</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혁(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파라델),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승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다),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로)

-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버도), 손범기(펠릭스), 윤복침(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홍(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b>Mercedes-Benz</b> 유틸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마태오 홍 종합보험</b> <b>메디케어</b>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파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중미반점</b>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에스터) 571-215-3232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웨딩사진 전문</b>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b>Folds &amp; Crafts</b>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 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호현(요셉)

# 하상주보

2017년 4월 16일 (가해)

예수 부활 대축일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덤가의 여인들〉, 프라 안젤리코 & 베노초 고출리, 1440-42년,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 미술관, 이탈리아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 봉헌성가: [131] 찬미 노래 드리자 [133] 부활 송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 파견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제1독서] ..... 사도 10,34-7.37-43

[화답송] ..... 시편 118(117), 1-2.16-17.22-23  
(◎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